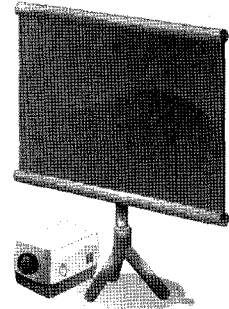


제33차 APT 관리위원회 회의



위규진 | 전파연구소 기준연구과장

1. 머리말

아태지역 전기통신연합(APT)은 아태지역 전기통신 업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협의기구로, 각국의 전기통신기관 간 정책, 기술 및 인력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있으며 34개 회원국과 4개 준회원 및 121개의 참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APT는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General Assembly)와 관리위원회(Management Committee)를 두고 있으며 산하에 아태지역 무선통신포럼(AWF), WRC준비그룹(APG) 및 표준화프로그램(ASTAP) 등 다수의 작업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관리위원회(MC)는 1명의 의장과 2명의 부의장을 2년 주기로 선출하며 1회 연임이 가능하고, 현재 MC의 장은 한국에서 전파연구소의 위규진 과장이, 부의장은 이란의 Mr. Ahmad Pourangnia와 베트남의 Mr. Phan Tam이 맡고 있다. 관리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며 APT 내 각 작업프로그램의 수행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연간 예산 및 차기년도 예산수립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2. 주요 회의 내용 및 결과

이번 제33차 관리위원회 회의는 2009년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개최되었으며, 총 21개 회원국의 정부대표와 준회원 및 기업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세부 회의는 작업프로그램(Work Program) ad hoc과 재정 ad hoc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2.1 작업프로그램 ad hoc 논의 결과

2009년은 APT 3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APT 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장관회의에서는 아태지역 브로드밴드 경제 실현을 위한 역내 공조 강화를 위해 공동선언문을 작성했고 이를 위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대한 이행을 관리위원회에 위임함에 따라 각 이행 계획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작업프로그램(안)을 한국에서 제안했고, 이를 검토하여 각 작업프로그램의 의장단이 논의해 각 작업프로그램에서 수행하고 차기 관리위원회에 그 실적을 보고하기로 했다.

APT 정책 및 규정 포럼(PRF)에서 제안한 APT 비회원의 회의 참석 조건은 관리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수립하고 각 작업프로그램의 절차(Working Method)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되었으며 2010년에 PRF 회의는 Business Dialog 및 Trade workshop과 연계하여 인도네

시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ASTAP은 SG와 통합하여 새로운 조직을 구성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작업계획을 수립했으나 새로운 업무 범위에 포함된 정책, 규제, 전략 및 무선 관련 이슈는 다른 작업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작업프로그램 간에 협의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APG에서 제안한 WRC 제출을 위한 APT 공동제안 및 기고서의 승인은 APG plenary에서 승인한 후에 동의한 회원국의 이름을 명시해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AWF에서 제안한 문서 승인 절차 등과 함께 APT 문서 체계(Documentation Scheme) 개정과 연계해 전반적인 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WTDC-10) 준비회의 및 ITU 전권회의(PP-10) 준비회의는 2010년에 1회 개최하기로 했다. PP-10 준비회의는 회의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 시 1회 더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각 작업프로그램 및 워크숍 등 APT 주요 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2.2 재정 ad hoc 논의 결과

2008년 APT 예산의 지출 및 감사보고서를 검토했으며 정보통신개발국장(DPD)의 고용 지체 문제는 2010년에 적격자를 채용하고 그 전까지는 전문 단기계약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작업프로그램에서 승인한 2010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2010년의 예산안을 승인했고 각 회원국의 분담금 단위는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2.3 기타 이슈

제11차 총회에서 제기된 총회 개최 전에 총회 준비를 위한 관리위원회 개최 방안에 대해 사무국에서 제안한 여러 옵션을 검토하는 Correspondence Group을 구성하기로 했다. APT의 모든 규정을 검토해 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ad hoc 구성에 합

의했으며 두 group을 합쳐서 말레이시아(Ms. Sulyna Abdullah)에서 맡아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슈였던 2011년 제12차 총회 및 제35차 관리위원회 개최국은 한국과 몽고에서 유치를 제안한 상태였으며 이번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양국 간의 협의를 거쳐 2011년에는 한국에서, 2014년 제13차 총회 및 제38차 관리위원회 회의는 몽고에서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또한, 차기 제34차 관리위원회 회의는 마카오에서 유치를 제안함으로써 2010년 12월에 마카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3. 개최국에 대한 에피소드

이란은 우리나라에서도 여행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공항에서 쉽게 가입하는 여행자보험마저도 제외국가 명단에 들어있어 평소에 쉽게 가볼 수 없는 지역이다. 그래서 그런지 보통 APT 회의에서 고민되지 않았던 회의 정족수가 문제가 되었다. APT 전체 회원국이 34개국이며 규정에 따라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가 성립한다. 그런데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등록된 회원국이 이란을 포함해 18개국이라 한 국가라도 불참하면 규정에 따라 회의가 개최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등록된 국가의 참석에 대한 확답을 받고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 다른 회원국을 독려함으로써 21개국이 참석해 무사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었다.

또한 이란은 이슬람 국가로서 이란을 방문하는 모든 여성들은 머리에 헤어스카프를 착용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여성 참석자들은 회의 참석 전에 사무국으로부터 헤어스카프 지참, 복장은 바지 또는 롱스커트에 가능한 한 롱코트를 입어달라는 메일을 받았으며 절대로 남성 참석자들과 악수하지 말아달라는 등 주의할 것들이 많은 회의였다. 실제로 여성 참석자들은 공항이나

거리뿐만 아니라 호텔 내에서도 회의장에서도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고서 참석해야만 했으니 불편하기도 했지만 좋은 경험으로 남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혹시라도 이슬람 국가를 여행하게 되는 여성분들에게는 다양한 스카프를 준비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다.

4. 맺음말

기존에 관리위원회 회의는 APT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예산 수립 등 두개 이슈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이번 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APT 규정 검토 및

APT 장관회의 공동선언문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작업 등 APT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역할을 정립했으며 그 작업에 한국에서 관련 기고서를 제출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해 APT 내 한국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또한, 이번 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개최국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2011년 제12차 총회 및 제35차 관리위원회 개최를 결정지은 한국의 입장에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TA**

정보통신용어해설

울트라 커패시터

Ultra Capacitor [전원]

기존 커패시터의 낮은 에너지밀도와 이차전지의 낮은 출력특성을 보완하는 에너지 저장장치. 영하 40도의 극저온부터 70도에 이르는 넓은 작동온도와 뛰어난 장기 신뢰성을 지니고 있어 미래형 자동차 및 산업 전력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